

조선 왕조 친잠례의 디지털 재현

이유경*,이용환*,박성실*,간수진**,이영희**
*단국대학교
**(주)한국e문화
e-mail:yhlee@dankook.ac.kr

Digitalization of Chin-Jam-Rye(Queen's sericultural ceremony) in Joseon Dynasty

Yukyong Lee*,Yonghwan Lee*,Sungsil Park*,
Soojin Kahn**,Younghi Lee**
*Dan-Kook University
**eCultureKorea Inc.

요 약

지식정보화시대인 21세기는 문화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전통문화에 첨단기술을 적용(CT:Culture Technology)하여 디지털화하고 이를 대중화, 상품화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왕비가 손수 뽕을 따고 누에를 쳐서 양잠을 장려한 궁중의식으로 위민정신과 민본사상이 담겨져 있는 친잠례(親蠶禮)와 친잠의궤(親蠶儀軌)를 동영상과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 멀티미디어 개발 시스템을 통하여 하이퍼미디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다.

1. 서론

지식정보화시대인 21세기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즉 '문화가 중심가치'가 되는 '문화의 세기'이기도 하다. 인터넷을 통한 세계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것' 혹은 '한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해외교포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더욱 높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문화에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디지털화하고 이를 대중화, 상품화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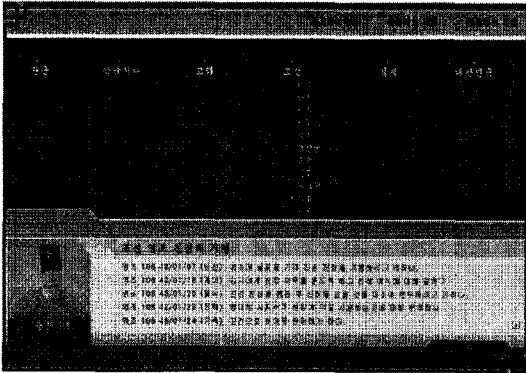
본 연구는 조선시대 궁중의례인 친잠례를 소재로 하였다. 친잠례는 조선시대 왕비가 내외명부 여성들을 거느리고 잠실에 행차하여 뽕을 따고 누에를 치는 의식이다. 근대 이전, 남성의 노동력이 농사로 상

징되듯이 여성의 노동력을 상징하는 길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여성 중 최고의 지위에 있는 왕비가 몸소 길쌈의식을 행함으로써 백성의 애민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궁중행사인 친잠례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매년 친잠례의 재현의식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이를 디지털로 재현하고, 왕비와 내외명부들의 친잠례 전 과정 즉, 친잠례의 배경, 출궁, 선잠의, 친잠의, 조현례, 수견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웹 사이트를 통하여 하이퍼미디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조선왕조의 궁중의례에 대한 전문 자료를 대중화하고 학술적 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의 전통문화 정보를 세계화한다.

2. 친잠례 역사와 기록

조선시대 역사 전공자와 전통 복식 전공자들이 참여하여 BC 2333년부터 현재까지의 친잠의 역사와 기록을 연구하고, 친잠례와 관련있는 자료들을 모아 연표로 구성하였다. 고대에는 주로 중요 노동인 양잠, 양잠기술 관련 사료들을 정리하였고 역대 행해졌던 친잠례 기록, 현대의 친잠 관련 행사 등을 시대별로 타임라인을 제작하였다[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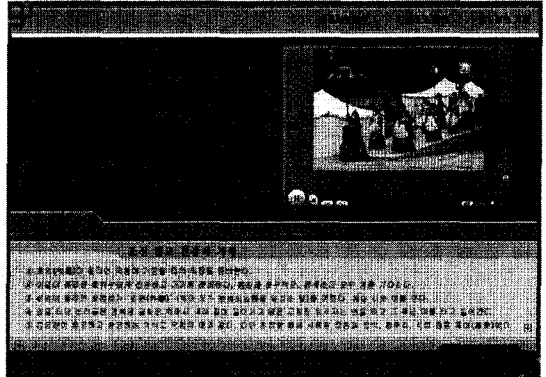
[그림 1] 친잠례 타임라인

3. 친잠례의 디지털 재현

조선시대 친잠례는 모두 6차례 거행되었다. 이 중 1767년(영조 43년) 친잠의식은 조선후기에 처음으로 거행되는 행사였다. 그 이전에 친잠례는 성종, 중종, 선조 대에 각각 거행되었으므로 가장 늦은 시기인 선조 대를 기준으로 거의 200년 만에 다시 거행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중요한 국가의식을 치른 후에는 꼼꼼한 보고서[儀軌]를 남겨 다음에 같은 행사를 치를 때 참고하도록 하였지만 임진왜란으로 이전의 의례들이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에 선조대 이전의 친잠행사에 대한 참고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전례를 살피기 위해 강화사고에 보관되어 있는 실록의 기록으로부터 성종, 중종, 선조대 실록에 보이는 친잠과 관련된 사실을 모두 수집하였다. 이처럼 1767년 거행된 친잠례는 이후 친잠의례로 편찬되어 현재 규장각에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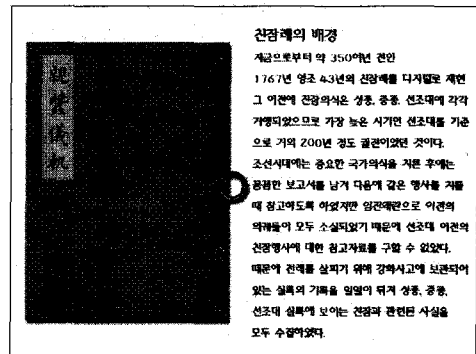
본 연구는 1767년 거행된 친잠례 중 당시 왕과 왕비가 살던 경희궁에서 출발하여 식이 열린 경복궁에 도착하는 출궁, 蠶神(西陵氏)에게 제사하는 의식인 선잠의(先蠶儀), 뽕잎을 따는 의식인 친잠의(親蠶儀),

친잠을 마치고 왕과 왕비가 내외명부들의 하례를 받는 조현의(朝見儀.) 누에고치를 거두는 수건의(受繭儀) 그리고 환궁, 행사 이후의 장면 등을 재현하였다[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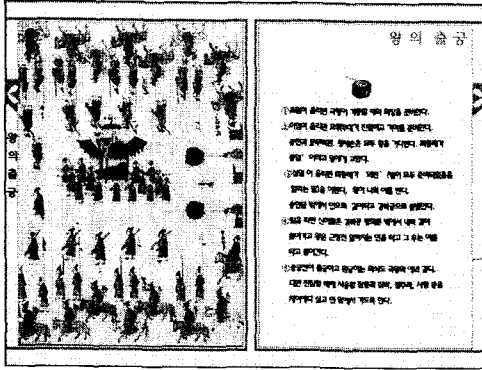
[그림 2] 시스템 메인화면

친잠의례에는 행사의 내용이 자세하게 쓰여 있으나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므로 친잠례의 디지털 재현을 위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전문가의 자문으로 시나리오화 하여 행사의 등장인물의 동작과 진행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였다[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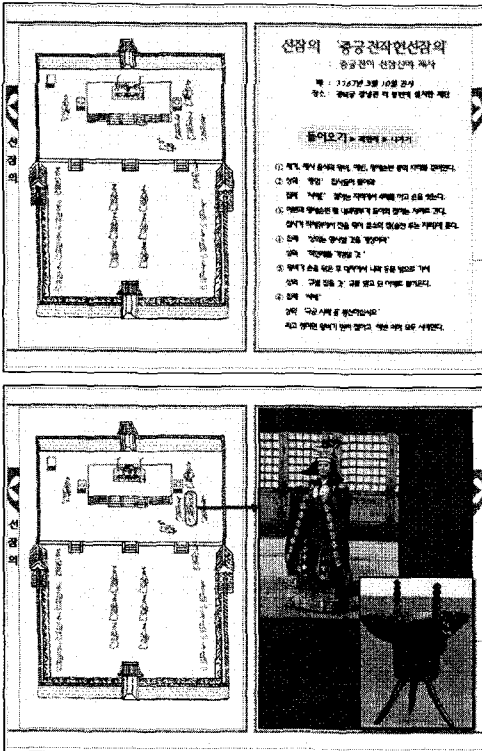
[그림 3] 3D로 제작한 친잠의례

[그림4]는 왕과 왕비가 거주했던 경희궁을 떠나 행사가 거행되었던 경복궁으로 출궁하는 장면이다. 초엄, 이엄, 삼엄이 울리면서 의장이 준비되고 왕이 가마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재현하였다. 왕의 화려하고 장엄한 행렬이 이어지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왕의 출궁화면

[그림5]에서 선잠의 간략한 내용과 함께 왕비, 혜경궁 홍씨, 왕세손빈, 내외명부, 집사 등의 등장인물들이 들어와서 작헌례를 행하고 나가는 동작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다. Flash로 제작하였으며 행사의 순서와 더불어 인물들의 복식, 제사 기물, 행사 장면의 동영상상을 함께 볼 수 있어 친잠례의 모든 행사 내용이 한 눈에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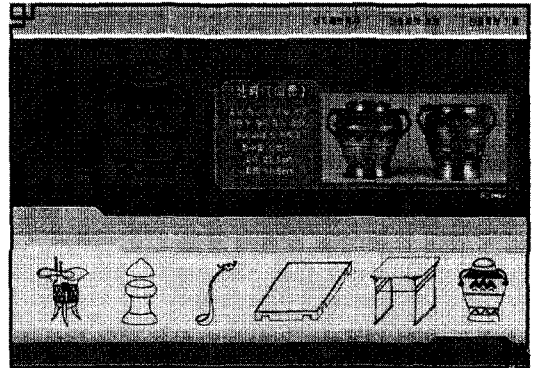


[그림 5] 선잠화면

4. 친잠례 의상과 기물

디지털 친잠례 행사 복원과 더불어 친잠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등장인물들의 복식, 사용되었던 기물, 친잠의례 등을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친잠례에 참가하였던 등장인물들의 의상을 재현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인 내용을 담아내어 영조시대의 궁중의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친잠례에는 제사 기물, 누에치는 기구 등 여러 가지 기물들이 필요하다. 그런 기물들이 친잠의례에 간략한 그림으로 나와 있다. 그 그림을 참고로 하여 현존하는 궁중유물들 속에서 쓰임새와 모양이 비슷한 물품들을 찾을 수 있었다[그림6].



[그림 6] 친잠례의 기물

5. 맺음말

조선시대의 주요 궁중의례인 친잠례를 디지털화하고 왕비와 내외명부들의 궁중 의상에 대한 이미지, 친잠례 행사와 친잠의례를 동영상과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웹을 통해 하이퍼미디어 정보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특히 전문적인 내용을 상세 설명과 관련된 이미지를 통해 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능에 주력하여 인터랙티브한 인터페이스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웹 시스템을 통하여 전통문화 유산으로 가치가 높은 친잠례를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역사적,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조선왕조 친잠례의 위민정신, 민본사상과 궁중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

참고문헌

- 『규장각 명품도록』, 2001, 서울대학교 규장각
『단원 김홍도』, 1995, 삼성문화재단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편』, 1986,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편
『복식』, 1995,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복식류 명품도감』, 1990, 고려대학교 박물관
『純祖純元后 嘉禮都監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
『圓幸乙卯整理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
『유림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한국국제교류재단
『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 신병주,
2001, 효형출판
『慈慶殿進爵整理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한영우, 1998, 효형출
판
『조선시대 기록화의 세계』, 2001, 고려대학교
『조선조말기왕실의복』, 김영숙, 1987, 민족문화문
고간행회
『친경 친잠의계』, 박소동역, 1999, 민족문화추진회